

대학의 안전교육 현황 및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방법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tuations of Safety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Coping Methods for Safety Accidents

정성일*, 오재연**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Sung-Il Chung(sichung@kwu.ac.kr)*, Jae-Yeon Oh(edulove@kwu.ac.kr)**

요약

본 연구는 예비사회인을 배출하는 대학의 안전교육 현황과 대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광주와 대전 지역의 대학생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안전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계열별 비중이 기타(공학, 예체능), 교육계열, 인문계열, 사회·자연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의 내용으로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으나, 실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당황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는 “피부에 상처가 나는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대학의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중심어 : | 대학생 | 안전교육 | 안전사고 | 안전의식 | 안전역량 |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methods for coping with safety accidents by university students, aft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safety education by universities in Korea. For this study, a survey of 411 students of universities in the cities of Gwangju and Daejeon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atio was high for answers such a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afety education beginning with the departments of engineering, art and physical training, education, art and humanity,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students most preferred first aid among the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of all departm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safety education, but were afraid to be embarrassed in the case of actual safety accidents, as was found through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of their awareness of coping methods with safety accidents. It was verified that many times their suffered skin and other wound in an earlier safety accident that they had experienced. This study suggests that safety education needs to be accomplished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predicting and practicing for causes and factors of danger in advance,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compet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s | Safety Education | Safety Accidents | Safety Awareness | Safety Competence |

* 본 연구결과는 2016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0월 26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01일

교신저자 : 오재연, e-mail : edulove@kwu.ac.kr

1. 서론

최근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가려고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많은 고교생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되는 등 계속적인 안전사고로 인해 위험 가능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사고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피해를 주는 사고라 정의(네이버 국어사전, 2016)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장소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은 매우 부족하다고[1]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각되면서 2016년 3월 15일 교육부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교육부 교육안전 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전교육 및 예비사회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안전관리 서비스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 제 12131호(2013. 12.30)가 일부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 31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5대 의무교육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8H),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10H), 약물의 오남용예방(10H), 재난대비안정(6H), 교통안전(10H), 연 44시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 17조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 11월 19일에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이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조차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 관련법은 4개 부처 8개 법률인 ‘아동복지법, 학교 안전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교통 안전법’ 이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기관, 상황에 따라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복지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장은 아동안전에 대해 매년 4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음이 보고(KBS 뉴스, 2014년 5월 6일, ‘학생 안전 관련법’ 선언적 수준)되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성인의 부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관리소홀 및 단일한 태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는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에서 안전사고는 2014년 기준 가정 내에서 68.5%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안전교육이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주고 태도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교육인데 핵심은 자신이나 타인을 사고나 피해로부터 지키는 안전능력을 기르는 것이다[2]. 두산백과에서 정의된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효

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인명존중의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훈련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안전사고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본이 되는 안전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생활태도는 안전한 능력을 태도화하기 위한 생활습관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전능력에는 위험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능력,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능력, 피해가 발생해도 최소한으로 막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정의되었다(대한간호학회, 1996). 따라서,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안전관련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지식과 관련된 교육,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교육,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 2016년 3월 교육부에서는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시·도 교육청에는 안전 전담부서를 두는 등 2016년부터 가칭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임용 및 승진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법적·제도적 안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을 신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계 재학생이나 교직이수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사회인으로 안전한 사회를 책임져 나가야 할 모든 계열의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과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사회에 진출하여 안전한 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요구된다. 즉, 전국민과 대학의 ‘예비사회인’이 함께 책임지는 안전사회 만들기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전국의 안전체험관도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대학의 예비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련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히 필요하다.

모든 기관의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중심인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예비 대학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하고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익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아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 성인의 안전역량 강화 연구[3-6]가 대부분이며, 대학생의 안전의식과 실천에 대한 비교연구[7][8], 학교안전이나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9][10]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낮음[8]과 생활실천행위가 낮음[7]을 보고하여 대학생을 위한 안전교육과정의 확대와 활성화 및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교원에게만 한정되어 실시되는 현재의 교육부 주요개정사항을 모든 계열의 대학생에게 확대 적용하여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 대학에서의 계열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전교육 현황 및 안전사고의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정도에 대한 현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안전사고 대처방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대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과정을 거쳐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열별, 학년별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연구목적, 연구 참여자로서의 윤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온라인 응답 및 배부를 통해 응답하게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시 한 문항이라도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 안내를 통해 모든 문항에 응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배부를 통해 설문한 응답자 중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41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구분	내용	사례수(N)	백분율(%)
지역별	광주광역시	271	65.94
	대전광역시	140	34.06
계열	인문계열(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외)	121	29.4
	교육계열(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외)	81	19.7
	의학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외)	64	15.6
	사회자연계열(경제학과, 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외)	69	16.8
	기타(공과대학 및 예체능학과)	76	18.5
	합	411	100.0
학년	1학년	89	21.7
	2학년	108	26.3
	3학년	157	38.2
	4학년	57	13.9
	합	411	100.0

2. 연구도구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인식조사를 위해 안전관련 선행연구[1][11-13]의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태 10문항, 교사의 인식과 지식을 연구하기 위한 문항 19문항으로 사용되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사회인인 대학생이 연구대상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연구를 한 선행연구[7][8]를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3인과 인문, 교육, 의학, 사회·자연, 기타계열

별 대학생 각 2명에게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 구분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구성과 문항 수

문항구분	내용	문항 수
대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성별, 학년, 소속학과	3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	안전교육 받은 경험 유무 안전교육 참여의향 선호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선호하는 안전교육의 방법	4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 유무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	4
총		11

3. 자료분석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대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중 ‘소속학과별’ 현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재 정부의 안전교육 역량강화가 예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열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안전교육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소속학과별 안전교육 현황 및 안전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속학과별 구분 시 참여대학의 계열과 학과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대학의 교수 4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로 구성하고 참여한 대학의 한 대학에서만 공과대학이 포함되었으므로 예체능학과에 포함하여 기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및 대학생의 소속학과별 안전교육 현황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및 대학생의 소속학과별 안전사고 대처방안 인식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

대학생의 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 안전교육 참여의향, 선호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안전교육 받은 경험 유무

대학생의 안전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안전교육 받은 경험 여부

구분	인문 계열	교육 계열	의학 계열	사회· 자연 계열	기타	전체	χ^2 p
예	91 (75.2)	61 (75.3)	57 (89.1)	48 (69.6)	12 (15.8)	269 (65.5)	107.76*** .000
아니오	30 (24.8)	20 (24.7)	7 (10.9)	21 (30.4)	64 (84.2)	142 (34.5)	
전체	121 (100.0)	81 (100.0)	64 (100.0)	69 (100.0)	76 (100.0)	411 (100.0)	

***p < .001.

[표 3]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안전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공학, 예체능)를 제외하고,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60%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생의 경우, 안전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7명으로 전체의 89.1%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열과 교육계열 대학생의 경우 각 91명(75.2%), 61명(75.3%), 사회·자연계열 대학생이 48명(69.6%), 기타(공학,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12명(15.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기타(공학,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64명(84.2%), 사회·자연계열 대학생 21명(30.4%), 인문계열 대학생 30명(24.8%), 교육계열 대학생 20명(24.7%), 의학계열 대학생 7명(10.9%)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계열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 값은 107.76,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01에서 대학 계열에 따라 대학생들의 안전교육 경험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문, 교육, 의학, 사회·자연 계열과 달리 기타(공학, 예체능) 계열의 경우 초·중·고 시절의 의무 안전교육 등 대학생활 이전까지 안전교육을 받은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안전교육 참여의향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참여의향을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안전교육 참여유무

구분	인문 계열	교육 계열	의학 계열	사회· 자연 계열	기타	전체	χ^2 p
예	96 (79.3)	65 (80.2)	44 (68.8)	49 (71.0)	75 (98.7)	329 (80.2)	25.21*** .000
아니오	25 (20.7)	16 (19.8)	20 (31.3)	20 (29.0)	1 (1.3)	82 (20.0)	
전체	121 (100.0)	81 (100.0)	64 (100.0)	69 (100.0)	76 (100.0)	411 (100.0)	

***p < .001.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기타(공학, 예체능) 대학생의 경우 안전교육 참여의향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으로 전체의 9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계열이 80.2%, 인문계열이 79.3%, 사회·자연계열이 71.0%, 의학계열이 68.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교육 참여의향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의학계열이 31.3%, 사회·자연계열이 29.0%, 인문계열이 20.7%, 교육계열이 19.8%,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이 1.3%로 나타났다. 대학의 계열에 따라 안전교육 참여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 값은 25.21,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01에서 대학 계열에 따라 안전교육 참여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미흡했던 기타(공학, 예체능) 계열 대학생의 경우 인문, 교육, 의학, 사회·자연계열의 대학생들 보다 안전교육의 참여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3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다중응답 후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내용(다중응답)

구분	인문 계열	교육 계열	의학 계열	사회· 자연 계열	기타
놀이에 대한 안전	16 (3.9)	23 (9.3)	7 (4.5)	2 (1.0)	0 (0.0)
교통에 대한 안전	54 (13.2)	23 (9.3)	12 (7.7)	20 (10.4)	43 (36.4)
화재에 대한 안전	59 (14.4)	42 (17.0)	35 (22.4)	30 (15.6)	8 (6.8)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	74 (18.0)	44 (17.8)	23 (14.7)	38 (19.8)	8 (6.8)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	60 (14.6)	28 (11.3)	21 (13.5)	27 (14.1)	11 (9.3)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	40 (9.8)	23 (9.3)	13 (8.3)	21 (10.9)	6 (5.1)
응급처치	95 (23.2)	61 (24.7)	44 (28.2)	51 (26.6)	42 (35.6)
기타	12 (2.9)	3 (1.2)	1 (0.6)	3 (1.6)	0 (0.0)
	410 (100.0)	247 (100.0)	156 (100.0)	192 (100.0)	118 (100.0)

대학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내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응급처치가 95명(23.2%)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이 74명(18.0%),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이 60명(14.6%), 화재에 대한 안전이 59명(14.4%), 교통에 대한 안전이 54명(13.2%),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이 40명(9.8%), 놀이에 대한 안전이 16명(3.9%), 기타가 12명(2.9%)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응급처치가 61명(24.7%)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이 44명(17.8%), 화재에 대한 안전이 42명(17.0%),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이 28명(11.3%), 교통과 놀이,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이 각 23명(9.3%), 기타가 3명(1.2%)순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의 경우도 응급처치가 44명(28.2%)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이 35명(22.4%),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이 23명(14.7%),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이 21명(13.5%),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이 13명(8.3%), 교통에 대한 안전이 12명(7.7%), 놀이에 대한 안전이 7명(4.5%), 기타가 1명(0.6%)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연계열의 경우 또한, 응급처치가 51명

(26.6%)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이 38명(19.8%), 화재에 대한 안전이 30명(15.6%),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이 27명(14.1%),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이 21명(10.9%), 교통에 대한 안전이 20명(10.4%), 기타가 3명(1.6%), 놀이에 대한 안전이 2명(1.0%)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공학, 예체능)의 경우 교통에 대한 안전을 43명(36.4%)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응급처치가 42명(35.6%),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이 11명(9.3%), 화재,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이 각 8명(6.8%), 약물오남용에 대한 안전이 6명(5.1%)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 교육, 의학, 사회·자연계열의 대학생들은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재난대비, 화재,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에 대해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기타의 공학, 예체능의 대학생들은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1.4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때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다중응답 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다중응답)

구분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 자연계열	기타
강의중심	24 (12.8)	14 (11.5)	14 (18.2)	9 (9.2)	6 (10.0)
실습중심	86 (46.0)	60 (49.2)	32 (41.6)	44 (44.9)	42 (70.0)
토론중심	11 (5.9)	9 (7.4)	0 (0.0)	3 (3.1)	0 (0.0)
시청각자료 중심	66 (35.3)	39 (32.0)	31 (40.3)	42 (42.9)	12 (20.0)
전체	187 (100.0)	122 (100.0)	77 (100.0)	98 (100.0)	30 (100.0)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이 실습중심의 안전교육을 인문계열 86명(46%), 교육계열 60명(49.2%), 의학계열 32명(41.6%), 사회·자연계열 44명(44.9%), 기타(공학, 예체능) 42명(70%)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청각자료 중심(35.3%, 32.0%, 40.3%, 42.9%, 20.0%),

강의중심(12.8%, 11.5%, 18.2%, 9.2%), 토론중심(5.9%, 7.4%, 0.0%, 3.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실습중심'의 교육이며, 시청각 자료 중심의 교육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대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다중응답,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 유무,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에 대해 계열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정도

주변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학생의 대처능력에 대해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대학 계열별로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 기타(공학, 예체능)의 경우 모두 '교육받은 내용은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당황할 것 같다'는 응답이 각 70.2%, 61.7%, 76.6%, 78.3%,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처방법을 조금 알고 있다.'가 각 25.6%, 29.6%, 17.2%, 20.3%, 44.7%, 27.7%,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대처하는데 문제없다.'가 각 4.1%, 8.6%, 6.3%, 1.4%, 1.3%, 3.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은 '안전교육 현황'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기타(공학, 예체능)를 제외하고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70% 이상으로 많았으나,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당황하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 대학생이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

대학생이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 다중응답 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 대학생의 경우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의 안전사고 경험이 각 22.7%, 30.8%, 23.7%, 27.1%로 가장 많았고, 두

표 8.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다중응답)

구분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	기타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타박상 및 찰과상 등)	87 (22.7)	65 (30.8)	47 (23.7)	55 (27.1)	39 (28.1)
코피 등과 같은 출혈	79 (20.6)	40 (19.0)	35 (17.7)	44 (21.7)	45 (32.4)
눈, 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47 (12.3)	27 (12.8)	31 (15.7)	23 (11.3)	40 (28.8)
탈골	14 (3.7)	4 (1.9)	10 (5.1)	6 (3.0)	1 (0.7)
골절	19 (5.0)	16 (7.6)	9 (4.5)	12 (5.9)	1 (0.7)
중독	5 (1.3)	0 (0.0)	3 (1.5)	3 (1.5)	1 (0.7)
추락	11 (2.9)	3 (1.4)	3 (1.5)	2 (1.0)	1 (0.7)
벌레나 사람에게 물린 경우	47 (12.3)	27 (12.8)	25 (12.6)	25 (12.3)	1 (0.7)
화상	54 (14.1)	21 (10.0)	27 (13.6)	27 (13.3)	5 (3.6)
기도가 막힌 경우	17 (4.4)	7 (3.3)	8 (4.0)	6 (3.0)	5 (3.6)
기타	3 (0.8)	1 (0.5)	0 (0.0)	0 (0.0)	0 (0.0)
전체	383 (100.0)	211 (100.0)	198 (100.0)	203 (100.0)	139 (100.0)

표 7. 안전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구분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	기타	전체	χ^2 p
대처방법을 조금 알고 있다.	31 (25.6)	24 (29.6)	11 (17.2)	14 (20.3)	34 (44.7)	114 (27.7)	24.073* .020
교육받은 내용은 알고 있으나 실제상황은 당황할 것 같다.	85 (70.2)	50 (61.7)	49 (76.6)	54 (78.3)	41 (53.9)	279 (67.9)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대처하는데 문제없다.	5 (4.1)	7 (8.6)	4 (6.3)	1 (1.4)	1 (1.3)	15 (3.6)	
전체	121 (100.0)	81 (100.0)	64 (100.0)	69 (100.0)	76 (100.0)	411 (100.0)	

*p < .05

번째로 ‘코피 등과 같은 출혈’이 각 20.6%, 19.0%, 17.7%, 21.7%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의 대학생들은 ‘코피 등과 같은 출혈’을 32.4%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경험한 안전사고는 ‘눈, 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의 안전사고 경험이 28.8%,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가 28.1%로 나타났다. 그 외 탈골, 골절, 중독, 추락, 벌레나 사람에게 물린 경우, 화상, 기도가 막힌 경우의 안전사고도 10%이하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와 ‘코피 등과 같은 출혈’등의 피부에 상처가 나는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 유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유무를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응급처치 연수 필요성 유무

구분	인문 계열	교육 계열	의학 계열	사회·자연 계열	기타	전체	χ^2 p
예	114 (94.2)	73 (90.1)	60 (93.8)	62 (89.9)	76 (100.0)	385 (93.7)	8.61 .072
아니오	7 (5.8)	8 (9.9)	4 (6.3)	7 (10.1)	0 (0.0)	26 (6.3)	
전체	121 (100.0)	81 (100.0)	64 (100.0)	69 (100.0)	76 (100.0)	411 (100.0)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유무를 조사한 결과, 기타(공학, 예체능)의 경우 응급처치 연수가 필요하단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10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문계열이 114명(94.2%), 의학계열이 60명(93.8%), 교육계열이 73명(90.1%), 사회·자연계열이 62명(89.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처치 연수 필요성에 대해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의학계열이 4명(6.3%), 인문, 사회·자연계열이 7명으로 각 5.8%, 10.1%, 교육계열이 8명(9.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계열에 따라 응급처치 연수 필요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 값은 8.61, 유의확률은 .072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 계열에 따라 응급처치 연

수의 필요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 계열에 따라 응급처치 연수 필요성에 대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

응급처치 연수가 이루어질 경우 연수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

구분	인문 계열	교육 계열	의학 계열	사회·자연 계열	기타	전체	χ^2 p
연1회	32 (26.4)	22 (27.2)	21 (32.8)	28 (40.6)	16 (21.1)	119 (29.0)	24.699* .016
연2회	60 (49.6)	42 (51.9)	31 (48.4)	30 (43.5)	41 (53.9)	204 (49.6)	
연3회	8 (6.6)	9 (11.1)	9 (14.1)	4 (5.8)	2 (2.6)	32 (7.8)	
연4회 이상	21 (17.4)	8 (9.9)	3 (4.7)	7 (10.1)	17 (22.4)	56 (13.6)	
전체	121 (100.0)	81 (100.0)	64 (100.0)	69 (100.0)	76 (100.0)	411 (100.0)	

*p < .05

대학생들이 응급처치 안전연수가 시행될 경우 연수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문, 교육, 의학, 사회·자연, 기타(공학, 예체능)의 모든 계열의 대학생이 연 2회에 인문계열은 60명(49.6%), 교육계열은 42명(51.9%), 의학계열은 31명(48.4%), 사회·자연계열은 30명(43.5%), 기타(공학, 예체능)은 41명(53.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연 2회에 60명(49.6%), 연 1회 32명(26.4%), 연 4회 이상 21명(17.4%), 연 3회 8명(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연 2회 42명(51.9%), 연 1회 22명(27.2%), 연 3회 9명(11.1%), 연 4회 이상 8명(9.9%) 순, 의학계열의 경우 연 2회 31명(48.4%), 연 1회 21명(32.8), 연 3회 9명(14.1%), 연 4회 이상 3명(4.7%) 순, 사회·자연계열의 경우 연 2회 30명(43.5%), 연 1회 28명(40.6), 연 4회 이상 7명(10.1%), 연 3회 4명(5.8%) 순, 기타(공학, 예체능)의 경우 연 2회 41명(53.9%), 연 4회 이상 17명(22.4%), 연 1회 16명(21.1), 연 3회 2명(2.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계열에 따라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 값은 24.699, 유의확률은 .016으로써 유의 수준 .05에서 대학 계열에 따라 응급처치의 연수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계열별 연 2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계열에 따라 연 4회를 그 다음순위로 응답한 경우, 연 1회를 그 다음순위로 응답한 경우 등의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응급처치 연수가 이루어질 경우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진다면 연 2회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전교육 현황 및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교육 받은 경험유무, 안전교육 참여의향, 선호하는 안전교육 내용과 방법인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 유무 및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 횟수인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안전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유무, 안전교육 참여의향, 선호하는 안전교육 내용과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학계열, 인문계열과 교육계열, 사회·자연계열, 기타(공학, 예체능)계열 순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참여의향을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계열, 인문계열, 사회·자연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계열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유무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참여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의 계열에 따라 안전교육 경험유무와 안전교육 참여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 계열과는 달리 안전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다고 볼 수 있

며, 주변의 사건사고를 경험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유무에 있어서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의 응답이 70%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와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이 15.8%로 낮게 나타난 결과를 대학생의 안전관련 연구를 한 선행연구 [7][8]들과 비교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기타(공학, 예체능)의 계열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대학생의 안전의식의 수준에 비해 생활실천행위가 낮지만, 안전의식과 실천행위는 서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7]과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안전의식 정도는 높은 반면 대학생활의 안전의식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8]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예비교원에게만 한정되어 실시되는 교육부 주요개정사항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나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취득한 자에게 학점 및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모든 계열의 대학생에게 확대 적용하여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 현황 분석을 위한 또 하나의 분석으로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중응답 후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의 대학생들은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기타의 공학, 예체능의 대학생들은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13] 교사들이 정기적인 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 추락, 화상, 출혈, 질식 등의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심폐소생술, 중독, 끼임, 고열에 관한 응급처치는 잘못 이해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응급처치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때 대학생이 선호하는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다중응답 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실습중심’의 교육이었으며, 다음으로 시청각자료 중심의 교육이었다. 실습중심의 안전교육을 선호하는 이러한 결과는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에서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추어 개발·보급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단,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 3조 2항의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내에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도록 안전교육을 계획해야 하며, 대학의 구조상 실습중심의 안전교육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한계가 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청각중심의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안전관리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을 위한 매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7][9].

둘째,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로 주변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학생의 대처능력에 대해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에 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받은 내용은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할 것 같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안전체험관’을 제외하고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안전교육현황에서 조사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기타(공학,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는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사회·자연계열의 대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70%이상으로 높았으나 실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안전교육

내용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적용시키기 위한 실제적 지식과 관련된 교육,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교육,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중 대학생이 주변에서 경험한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 다중응답한 결과,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와 ‘코피 등과 같은 출혈’등의 피부에 상처가 나는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에 대해 분석한 연구[1]에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다음으로 코피 등과 출혈, 벌레나 사람에게 물린 경우 순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와 관련지어 분석해보면, 대학생이 경험한 안전사고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피부에 상처가 나는 안전사고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안전사고 대처방법 인식에 대한 조사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유무와 연수 횟수를 대학 계열별 분석한 결과, 기타(공학, 예체능), 인문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사회·자연계열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은 연 2회의 응급처치 연수에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선행연구[1][14]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연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14]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교사 안전연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연수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유치원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사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1]연구에서는 100%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아교사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욱 주목될 수 있겠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결과에서도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심폐소생술 등의 순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 2회의 응급처치 연수를 가장 많이 응답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16년 개정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기

준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한다고 제시한 내용, [1]의 연구에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응답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응급처치 연수의 경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교육부 주요개정사항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안전교육이나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 대상을 한정하여 노력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예비사회인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모든 계열의 대학생에게 확대 적용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모든 계열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주변의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실제 위험가능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습교육 및 시청각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 내에서 모든 계열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중심, 시청각 중심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하고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겸비한 예비사회인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참 고 문 헌

- [1] 홍초롱, 영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 [3] 김수향, 안은희, “유아교사의 안전지식, 안전통제가 안전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46-254, 2015.
- [4] 김직호, 허린강, “유아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6권, pp.219-235, 2016.
- [5] 유구종, 한명옥, “유아교사를 위한 상황중심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시간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317-344, 2015.
- [6] 허기, 형근혜, 홍혜경,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기준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과 실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25-154, 2015.
- [7] 김상엽, “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2호, pp.279-289, 2015.
- [8] 윤영미, 성경숙, 김은주, “대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 실천행위 및 대학 안전관리 서비스체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21권, 제6호, pp.1033-1042, 2014.
- [9] 최은, 학교안전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 학교안전 책임과 안전행정기능 관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0] 황선철, 안전문화와 안전행동 및 역할 내 성과와의 관계: 예방초점 및 운명주의의 조절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1] 문은주, 부모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2] 이은혜,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3] 조민순,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4] 김승현, 유아교사의 안전지식 정도 및 안전연수에 관한 인식과 요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저 자 소 개

정 성 일(Sung-II Chung)

정회원



- 1991년 9월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경제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교육, 서비스교육, 안전관리

오 재 연(Jae-Yeon Oh)

정회원



- 2005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연구방법론, 교육과정, 안전교육